

장흥 탐진강변 누정의 향촌문학적 의의*

김 준 옥 (전남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
| II. 탐진강변 누정과 문학 | |
| 1. 누정의 형성 | 2. 避世의 逆說 - 幽隱至樂의 풍영 |
| 2. 편액의 문학적 실체 | 3. 一群의 지역문학- 實景山水의 내면화 |
| III. 탐진강변 누정의 향촌문학적 의의 | IV. 맺음말 |
| 1. 文林의 형성 | |

국문초록

장흥 탐진강변에는 창랑정, 사인정, 독취정, 부춘정, 동백정, 용호정, 경호정, 영귀정 등 8정자가 있다. 8정자는 모두 조선 초기에 창건되었는데, 그 동안 다 훼손되었다가 19세기 전후로 다시 세워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문학 활동이 전개되어 많은 편액이 걸리게 된다. 이 논문은 이 편액의 문학적 실체와 의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기문과 시문으로 된 편액에서 탐진강은 중국의 동강이나 기수와 동일시되었고, 그 주변은 부춘산과 무우로 대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문학적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탐진강변 누정의 향촌문학적 실체와 의의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째, 8정자는 향촌 사회의 혈연적 결속을 넘어 문학적 연계망으로 활용

* 이 논문은 제61회 국어문화회 전국학술대회(2017.1.19, 전북대학교)에서 발표한 소론을 보완한 것임.

되었다. 이는 8정자를 집단적으로 돌아가며 수창했던 시회로 증명된다. 시회는 난정회·풍영계·상영계·정사계·향사회·낙양회·죽계회·양사계·강친계 등이다. 여기에 참여한 문인들은 그 수가 문림을 이루고 있다.

둘째, 향촌 문인들은 8정자를 유거와 은일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문학 활동을 전개했다. 19세기 지역에서는 현실 참여에 보다 적극적이었는데, 8정자 출입 문인들의 편액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세의 역설로 규정하면 그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제영은 누정 주변 실경산수가 유사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산수시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강변 누정이라는 문학 공간, 19세기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연과 작가가 하나 되는 심미적 성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8정자 제영은 자연 환경을 고려한 향촌문학으로 존재했다고 하였다.

어느 지역이든 그 문학의 실체와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을 몇 개의 향촌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장르별, 시기별, 작가별로 종합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모두 합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 연구 결과는 장흥 지역문학 전체보다는 일부분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탐진강변 8정자, 향촌문학, 문림, 피세의 역설, 실경산수시

I. 머리말

장흥은 문림(文林), 문향(文鄕)으로 불린다. 예부터 이름 있는 문인들이 많이 나와 문학적 기반을 탄탄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향촌 문인들이 탐진강변 누정을 출입하면서 풍영을 즐겼던 사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적 실체와 의의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논제는

탐진강변 8정자¹⁾의 편액을 대상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필되었다.

탐진강은 영암 궁성산에서 발원하여 장흥 3개 읍면을 중으로 흐른다. 강변을 따라 불과 50여 리 사이에 8개의 정자가 있다. 이들은 원래 씨족 재실 겸 종회 장소였다. 그러면서 문인들의 풍영소로도 활용되었다. 정자 편액이며 시회의 계안이나 시첩 그리고 관련자들의 문헌에 수록된 시문들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 향촌 작가들의 개인 문집에서도 8정과 관련된 시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누정문학은 대개 누정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시대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별 사회사와 연계되는 통시적 접근이 필수인 줄 안다. 또 누정에 출입했던 작가의 생애와 문학 활동 그리고 문집도 일일이 살펴야 한다. 그러나 8정의 누정문학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기 힘들다. 정자의 창건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거의 모든 편액의 걸린 시기가 19세기 전후로 비슷하고, 작가도 이 시기에 향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서 그 생애와 문학 활동 및 작품을 탐색하기가 수월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액이라는 문학 양식, 강변 누정이라는 문학 생태, 19세기 전후라는 창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문학 한 축으로서의 탐진강변 향촌문학 실체와 의의를 살필 수밖에 없다.

향촌은 시골마을이라는 뜻이고, 지역은 자연적 또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말한다. 조선의 기초적 지방 행정 체제는 군현과 면리였는데, 군현은 지역에 해당한다 하겠고 면리는 향촌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 향촌문학은 아직 보편적으로 통용된 용어는 아니나 지역문학보다 공간적으로 좁은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향촌문학이라 하면 대체로 아웃사이드, 변두리 의식, 경박한 문학성 등을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작금에는 향촌문학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²⁾ 향촌문학은 지역문학

1) 탐진강변 8정자는 창랑정(滄浪亭), 사인정(舍人亭), 독취정(獨醉亭), 부춘정(富春亭), 동백정(冬柏亭), 용호정(龍湖亭), 경호정(鏡湖亭), 영귀정(詠歸亭)을 말한다. 이하 8정이라 한다.

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니, 아직 밝혀진 바 없는 8정에 대하여 그 실체와 의의에 천착하는 일은 지역문학 일단을 고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연구 결과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보완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탐진강변 누정과 문학

1. 누정의 형성

탐진강변에 누정이 처음 세워진 것은 선초이다. 1422년 읍성을 처음 건립할 때 강이 내려다보이는 객관 북쪽마루 가까운 곳에 청화루(淸和樓)를, 강 건너에는 동정(東亭)을 동시에 세웠다.³⁾ 둘 다 외세를 관망하는 병영시설이었지만, 청화루를 오른 감사나 병사조차도 누정 경치에 취해 승경 감회를 읊은 바 있다.⁴⁾ 또,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⁵⁾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 기봉(岐峯) 백광홍(白光弘, 1522~1556),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1537~1582) 등도 동정에 올라 탐진강을 눈앞에 두고 시재를 떨친 바 있다.⁶⁾ 이후로 이 두 누정은 없어졌는데, 1923년에 길행식(吉幸植, 1893~

-
- 2)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가문학」, 월인, 2009.
 임 형, “동백정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전남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용호,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2011.
- 3)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여지지」(1656), 「장흥읍지」(1747), 「여지도서」(1759), 「대동지지」(1864), 「증보 문헌비고」(1908) 등의 자료 <장흥도호부>조 참조.
- 4) 전라도관찰사 성임(成任, 1421~1484), 김영유(金永濡 1418~1494), 전라도병마절도사 허중(許琮 1434~1494), 이계동(李季叟 1450~1506) 등의 작품이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 5) 南孝溫, 「秋江集」, 卷 1, 〈泗陽江東亭留別慶會〉.

1957)이 청화루 터로 추정되는 이곳 가까운 곳에 창랑정(滄浪亭)을 세우고 수창회장 및 탁족회장으로 활용한다.

계유정난 직후에 단종을 섬기던 김필(金王筆, 1426~1470)이 벼슬에서 잠시 물러나 장흥과 강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설암산에서 칩거하며 사인정(舍人亭)을 짓는다. 임란 때 소실되었던 건물은 19세기 후손들의 중창을 거친다.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아래로 흐르는 탐진강이 어울려 장관을 이룬데다 설암이 민중을 교화시키고 좋은 풍속을 이루어놓음이 더없이 지극했으니⁷⁾ 심방한 유현들이 한 돌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인정 동쪽 5리쯤에 독실보가 있다. 그 바로 위가 독곡(獨谷)이다. 향촌작가 염석진(廉錫珍, 1855~1932)에 의하면, 일찍이 여기에 정자가 있어 석정(石汀) 이심상(李深嘗?~?), 추강(秋江), 독곡(獨谷) 정명세(鄭明世, 1550~1592) 등이 누정에서 시주를 즐기고 조대에서 낚시하며 놀았다⁸⁾ 한다. 19세기까지는 많은 시인묵객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자리에 삼우당(三友堂) 김병용(金炳庸, 1885~1947)은 1933년 독취정(獨醉亭)을 건립한다. 그는 이곳에서 시주를 즐기며 상하권의 시문집을 남겼다⁹⁾고 하나 그 행방은 알 수 없다. 다만 「남곡유고」 등에 독취정에서 수창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이 곳 또한 문사들이 즐겨 찾던 창작 무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춘정 터는 청풍김씨와 관련이 있다. 문평공 김길통(金吉通, 1408~1473)이 전라감사 시절 읍성을 순행하고 1466년에 지은 <문평공순찰시제본부청화루운(文平公巡察時題本府淸和樓韻)>¹⁰⁾과 <제동헌(題東軒)>¹¹⁾을 남겼는데, 현재 이 작품은 부춘정에 걸려 있다. 임란 이후에는 의병 문희개(文希凱,

6) 「岐峯集」과 「玉峯集」에는 예양강에서 읊은 시가 몇 편 있다.

7) 金承植, 편역 <舍人亭重修記>. 公之勇退行義 而不期然而然者也 公之化人成俗 可謂至矣盡矣.

8) 廉錫珍, 「南谷遺稿」, 권 2. <獨醉亭記> 참조.

9) 「慶州金氏杜溪公派大同譜」, 卷 4, 1991, p.330.

10) 청화루 편역, 凡庸幸遇聖君知/杖鉞何嫌白首時/取好巡遊湖海路/不須高步鳳凰池/乾坤未必分輕重/梅杏終然有早遲/世事元來皆此類/儒冠初豈誤身基/

11) 청화루 편역, 役役巡諸郡/行行度幾山/如何心轉側/客裏見春還

1550~1610)가 벼슬에서 물러나 만년을 보내면서 이곳에 청영정(淸映亭)을 세웠다. 정자 앞 강가에 옥봉이 ‘용호(龍湖)’라 새겨놓은 조대가 있고, 동강(桐江)을 시제로 한 작품이 다수 전하고 있어서 이미 이전부터 향촌 문인들의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청풍인 김기성(金基成, 1801~1869)이 사들여 1838년에 부춘정을 세웠다.

의정부좌찬성 김린(金麟, 1392~1474년)도 계유정난 때 장흥으로 은거한다. 김린은 탐진강 지류 호계 학등에 자신의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고¹²⁾ 동백정(冬栢亭)을 세운다. 그리고는 문사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재를 겨루며 이 마을에 세거한다. 18세기 이후에는 후손들이 정자를 경영하면서 마을에서 대동계나 별신제가 있을 때는 선뜻 내주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주로 향촌 문인들이 문풍을 진작시킨 곳으로 활용되었다.

용호정(龍湖亭)은 탐진강 중류 용반리 용소 위에 있다. 이곳은 원래 사모대(紗帽臺)라 불리는 해암(蟹菴) 김공(金公)의 유지였다.¹³⁾ 낭주인 최규문(崔奎文, 1784~1854)이 강 건너에 있는 조부의 유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보는 자신의 부친을 위하여 1828년에 여기에 정자를 건립했다.

경호정(鏡湖亭)은 탐진강 중류 기동마을에 있고, 영귀정(詠歸亭)은 지금은 수몰지역이 되어버린 옛 단산리 봉명산 자락에 있었다. 둘 다 장흥위씨 제실이었다. 운암(雲巖) 위덕관(魏德寬, 1547~1628)이 임란 이후부터 기동마을에 눌러 살면서 마을 북쪽 탐진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석대에 초정을 세워 강학처소로 이용했는데, 후손들이 이 자리에 경호정을 세웠다. 영귀정 역시 일찍부터 유생들이 드나들던 강학처소였다. 여기에 위계민(魏啓玟, 1858~1925)이 1923년에 부친의 산소를 봉명산에 마련하고 정자를 세웠다.

8정은 지조를 지킨 선비들의 유지 혹은 강학 터에 19세기 전후에 후손들에 의하여 다시 세워졌다. 청화루와 동정을 제외하면 모두가 사가 누정들로 사인정은 영광김씨, 독취정은 경주김씨, 경호정과 영귀정은 장흥위씨, 동백정은 청주김씨, 용호정은 낭주최씨가 주인이었다. 관가 부속시설이었던 청화루

12) 金履漢, 편역 〈冬栢亭記〉. 亭以栢名 志其節也.

13) 崔奎文, 편역 〈龍湖亭記〉. 鳳嶺下水越峴有紗帽臺 古處士蟹菴金公遺址.

는 없어졌는데, 이곳 가까운 창랑정은 나중에 해평길씨의 누정이 되었다.

19세기는 무엇보다 문벌을 앞세운 시기였다. 개인의 학식이나 인격보다 가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경향을 막론하고 만연하여 향촌사회까지도 명조나 현조를 중심으로 강한 뿌리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후손들은 조상을 위한 사원을 건립하고, 족보를 만들거나 서책을 발간하는 일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다. 비록 향사들이었지만, 그래야만 자신들의 신분도 더 상승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8정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고, 향반으로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편액의 문학적 실체

누정문학은 기문(記文), 상량문(上樑文), 제영(題詠), 소지(小識), 사적(事績識), 공덕지(功德識), 주련(柱聯) 등 다양한 양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8정에는 기문 및 상량문과 제영이 대부분이다. 기문이나 상량문은 다른 누정과 마찬가지로 조영 사실, 찬문, 기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영은 거의 경영자의 원운에 갇힌 방식으로 호운작시했거나 선시에 대한 차운시이다.

창랑정에는 창건 당시에 현액한 기문 및 상량문 3편과 제영 2편이 있다. 김영근(金永根)이 상량문과 기문을 남겼다. 이상규(李相珪)도 기문을 썼는데, 그의 <창랑정기(滄浪亭記)>에서는 장흥이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변방으로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¹⁴⁾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외세를 관망하기 위한 청화루가 있었다. 그 바로 아래 박림소는 진실로 바람 쐬고 목욕하는 장소로 부합된다. 그래서 창랑정이 들어선 이후로는 문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2편의 시문에서도 옛 성터에 세워진 창랑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정이 솟아나는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사인정에는 모두 20 편의 편액이 있다. 상량문 하나에 기문이 셋이고 나

14) 李相珪, 편액 <滄浪亭記>. 夫斯地也 南海之徼也. 我國山川擅奇乎天下 而自北以南 延袤 三千里終焉. 結局於斯 則造物者之費精神殫巧力 蓋極於斯 而遂寧一郡尤爲鍾萃也.

머지 16편이 제영이다. 후손 김몽룡(金夢龍, 1708~1788)의 <사인정상량문(舍人亭上樑文)>이 1886년에 쓰였고,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1730~1802)가 1799년에 지은 <사인정기(舍人亭記)>도 있다. 제영 중에는 정자 주인 김필이 동지들과 함께 지은 연구시(聯句詩)¹⁵⁾가 있다. 또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의 <제사인암화상석면(題舍人岩畫像石面)>¹⁶⁾은 1933년에 걸렸다. 사인정에는 다른 정자에 비하여 후손들의 시문이 많다. 김복현(金馥鉉), 김경현(金擎鉉), 김한규(金漢珪), 김한민(金漢敏), 김정식(金正植), 김영식(金永植), 김화식(金和植), 김한칠(金漢七)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담양군수 홍배호(洪配浩), 진사(進士) 이상구(李相求), 김학(金王齋), 박재순(朴載淳), 부사 이학래(李鶴來), 절도사 조우석(趙禹錫)의 차운시도 있다. 제영은 19세기 후반 작품이 대부분이고 20세기 초기 작품도 몇 있다.

1933년에야 다시 창건된 독취정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현판조차도 찾기 어렵다. 다만, 염석진의 「남곡유고」, 김인섭(金寅燮, 1884~1949)의 「낙헌유고(樂軒遺稿)」, 위계룡(1870~1948)의 「오헌유고(梧軒遺稿)」 등에 독취정에서 차운하고 풍성한 작품이 다수 보인다.

1838년에 중수된 부춘정에는 30편의 편액이 있다. 김길통이 읍성을 순행하고 남긴 편액 2편도 여기에 있다. 후손 김기헌(金基憲, 1790~1865)이 1844년 <부춘사창건지(富春祠創建識)>를,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장한 일로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던 김평묵(金平默, 1819~1888)이 1883년에, 민형기(閔亨基, ?~?)가 1899년에 각각 <부춘정후기(富春亭後記)>와 <부춘정기(富春亭記)>를 썼다. 김길통의 두 작품을 제외하면 모든 제영은 19세기 이후부터 게시되었다. 이 중에는 1873년에 이희정(李熙鼎)의 차운시가 있다. 그 머리에

“내가 역참의 관리로 부임하여 이 정자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정자 주

15) 雪巖公-雲山礙日上稷遲 李樛軒-霧樹牽風隨路遠 雪巖公-溪邊處處梅臨水 李義谷-山下 家家竹擁軒 雪巖公-竹扉茆舍傍清溪 李義谷-古郡人稀鴉亂啼 雪巖公-地坼天浮海 朴晚節 -山回水抱城 朴晚節-山色晴繞樹 雪巖公-潮聲映撼城

16) 宇宙邱陵變/蒼崖怪石留/根盤蟄龍窟/彰倒大江流/我亦前銜是/來看舊意悠/無由補天缺/相對暗生愁

인과도 허물없이 지냈다. 마침 이번에 시회가 있어서, 나도 또한 끝 좌석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침내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시정이 일어나 졸렬함을 잊고 현판의 시에 차운하여 정자를 유람한 자취를 기술하게 되었다.”¹⁷⁾

를 제목으로 붙였다.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시회임을 밝힌 것이다. 나머지는 부춘정을 창건한 김기성의 원운과 이에 차운한 제영으로 1838년 이후 1949년 사이에 창작되었다. 편액에 이름이 올라 있는 문인은 김기석(金基錫), 김기헌(金基憲), 윤정기(尹廷琦), 김익권(金益權), 김철환(金澈煥), 유진필(兪鎭弼), 유진찬(兪鎭贊), 고언주(高彦柱), 김경현(金擎鉉), 김완식(金完植), 김윤식(金允植), 김윤진(金潤珍), 김윤규(金潤珪), 김영방(金永邦), 김지현(金之鉉), 위계철(魏啓哲), 김대현(金大鉉), 김익한(金益翰), 송철현(宋哲憲), 송증현(宋曾憲), 정기현(鄭基鉉), 임병회(林炳薈) 등이다. 절도사 조우석(趙禹錫)·신석희(申奭熙)·민치준(閔致駿),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심석(心石) 송병순(宋秉珣) 형제, 금릉군수(鎭陵郡守) 이상규(李瑋珪), 고을 부사(府使) 박현규(朴顯圭) 등은 빈객으로 참여했다.

동백정 내부에는 상량문 1편에 7편의 기문이 있다. 제영은 11편이 있다. 1872년 중건 때 <동백정기>를 썼던 김윤현은 정자를 지어 놓고 날로 술친구와 시우를 불러 글로 회포를 풀고 선조 추모하는 마음을 부치며 산수 주인이 되고자¹⁸⁾ 했다고 한다. 후손 김석곤은 <동백정기(冬栢亭記)>에서 논어의 ‘날이 추워진 뒤에라야 송백이 늦게 시들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는 구절을 상기하며 동백정으로 누정 이름을 붙인 연유를 말하고 있다.¹⁹⁾ 후손 김이한(金履漢)이 <동백정기(冬栢亭記)> 말미에 연(年)·연(烟)·면(眠)·선(仙)을 운으로 원운시를 붙였다. 여기에 김형권(金炯權)·김봉규(金奉圭)·송병순(宋秉珣)·송영대(宋榮大)·이상구(李相求)·김성채(金成采)·김익

17) 余涖郵以來 稔聞斯亭之勝 而康闢與地主 適會于此 余亦參末席 遂酣飲暢情 忘拙和板上韻 以紀遊覽之蹟.

18) 金潤賢, 편액 <冬栢亭記>. 棟宇旣成 工匠告訖 日與酒友詩朋 酣暢嘯咏 而追感之心 寓之山水 吾將老於山水主人也夫.

19) 金錫坤, 편액 <冬栢亭記>. 吾先祖卓犖之節 當板蕩之世 死不辭難 非持節 能悉逮乎 與歲寒後彫之語相符 則豈有前知者 命名於千載之前歟.

김(金益儉)·김윤홍(金潤鴻)·이재만(李載晩)·오익영(吳益泳)·김윤항(金潤瓚)·김문옥(金文鈺) 등이 차운했다. 참여 문인 중에는 후손보다는 오히려 타성이 많다. 이는 잦은 시회 활동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용호정에는 22편의 편역이 있다. 이중 상량문 및 기문은 6편이고, 제영은 16편이다. 1839년 건립 당시에 게시했던 시문은 4편이며, 1971년까지 해를 달리하며 12편이 걸렸다. 기문은 5편으로 최규문(崔奎文, 1784~1854), 이희석(李僖錫, 1804~1889), 조연명(趙然明, 1797~?), 기정진(奇正鎭, 1798~1879), 김한섭(金漢燮, 1838~1894)이 썼고, 상량문은 최동민(崔東珉, 1871~?)이 읊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다른 누정기에 비하여 효행을 강조하고 있다. 제영은, 용호정이 망친지정(望親之亭)·위친지정((慰親之亭)²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경산수화 같은 느낌을 준다. 이밖에 김구(金王瞿), 이시징(李時徵), 최창룡(崔昌龍), 김권(金權), 김윤규(金潤珪), 김영방(金永邦), 윤상열(尹商說), 김익권(金益權), 김윤진(金潤珍), 김익한(金益翰), 위계충(魏啓忠), 최창희(崔昌熙), 강신황(姜信晃), 김기권(金基權), 최원표(崔元杓), 이진원(李鎭源) 등 향촌 문인들의 제영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난정회, 상영계(觴詠契), 풍영계(諷詠契) 등의 회원으로 활동한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용호정에서는 시회가 자주 열렸다는 뜻이다.

경호정에는 모두 16편의 편역이 있다. 2편의 상량문에 3편이 기문이다. 나머지는 시문이다. 정자 주인 위계염은 <경호정중건기(鏡湖亭重建記)>에서 “이곳에 족속들을 불러 모아 정담을 나누고, 손님을 맞이하여 시주를 즐길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 또한 잘된 일이 아닌가?”²¹라 했다. 김정채(金正采)도, 경호정이 제각 기능만이 아니고 수창하는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²² 1912년 1차 중건 때 위계훈(魏啓勳)·위국채(魏國采)·위계창(魏啓昌), 1964년 2차 중건 때 위인환(魏仁煥)·위계염(魏啓炎)·위영환(魏永

20) 崔奎文, 편역 <龍湖亭記>. 思而在吾親爲望親之亭 在吾等爲慰親之亭.

21) 魏啓炎, 편역 <鏡湖亭重建記>. 聚族戚情話於斯 迎賓客文酒於斯 綽乎有於餘矣 不亦善哉.

22) 金正采, 「仁谷集」, <鏡湖亭重建記>. 且洞多遊人 能爲詩 足以 酬賡 來遊之爲諸景物 使而一有作之作 而振起興 亭由是益名.

煥)이 제영했다. 이상철(李相撤)·강신황(姜信晃)·김익검(金益儉)·김익한(金益翰)의 작품도 있다. 장흥 위씨 족손들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성도 4사람이나 참여했다. 또 창작 시기도 다르니 아마도 시회 끝에 편액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부분의 시문은 류(流)·주(洲)·유(留)·추(秋)에 갇혀서 승선별업을 찬양하면서 선경에 취한 심경을 노래했다.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에 차운한 위국채(魏國采)는 <경호정10경(鏡湖亭十景)>²³⁾을 노래했다. 난정회원(蘭亭會員) 강신황(姜信晃, 1887~1964) 이 1935년 여름에 <근차(謹次)>한 작품도 있다.

영귀정에는 20세기 초반에 지은 1편의 상량문과 4편의 기문이 있다. 제영은 8편이다. 영귀정은 처음부터 제실과 학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었기 때문에, 기문은 그런 내용이 다분하지만 시문은 증점(曾點)이 기수에서 몸을 씻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며 노래하다 돌아온다는 식의 무우지풍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주인 위계민(魏啓旻)이 영(靈)·정(庭)·성(星)·성(醒)을 원운으로 읊으니 족손 위계래(魏啓來)와 위헌규(魏憲奎)가 갇운했다. 그리고 김익검(金益儉)·김익한(金益翰)·이학로(李學魯)·서상훈(徐相助)·문병상(文炳常)이 차운했다. 1949년에 창작된 문병상의 <영귀정10경(詠歸亭十景)>²⁴⁾은 일종의 선시(仙詩) 같은 분위기와 느낌을 자아낸다.

앞에서 보았듯이, 호남 누정문학이 15,16세기 사립들에 의하여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²⁵⁾과는 달리, 8정에서의 문학 활동은 19세기 진후에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건 계기가 정자마다 각기 다른데, 창랑정과 독취정은 탈속이, 사인정과 동백정 그리고 부춘정은 절의가, 용호정과 영귀정은 효가, 경호정은 씨족 중회가 그 계기요 기능이었다. 난세에 절의들의 은둔처였던 사인정, 독취정, 동백정, 부춘정 등은 장흥

23) 魏國采, 편액 <鏡湖亭十景>. 蓮峯露月 龍湖鳴灘 仁寺曉鍾 稼亭牧笛 巖巖歸雲 龜野浮烟 桐江清風 蓉山落照 松汀漁火 船巖明沙

24) 文炳常, 편액 <詠歸亭十景>. 斗輪落照 輜峰露月 丹山炊烟 清沼漁火 竹磴農歌 桐幕樵笛 馬岩清風 甌峰落霞 江市酒旗 山寺飯鍾

25) 朴俊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 17집,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1987, pp.1-28.

을 의향이라는 데 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뒷날 일제의 침략에 맞섰던 송병선(宋秉璿, 1936~1905)과 송병순(宋秉珣, 1839~1912) 형제의 편역이 부춘정과 동백정에 걸린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런데 8정 거의 모든 편역은 창건 계기를 찬양하면서, 탐진강은 동강(桐江)과 기수(沂水)로 동일시되었고, 그 주변은 때로 부춘산과 무우(舞雩)로 대체되어 있다. 동강과 부춘산은 후한 때 엄자릉(嚴子陵)이 황제가 된 친구 유수(劉秀, BC 6~AD 57)의 벼슬자리 제의를 거절하고 숨어들어 낚시하며 촌로로 살다 죽었다는 유거 장소이다. 기수 및 무우는 증점이 공자 앞에서 언급했던 은자의 강이요 언덕이다. 또 하지장의 경호 또한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동강과 부춘산, 기수와 무우 그리고 경호는 다 명리를 잇은 유유자적한 삶을 상징하는 풍영소의 의미를 지닌다. 8정 편역은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를 반영한 실경산수시가 대부분이다.

Ⅲ. 탐진강변 누정의 향촌문화적 의의

1. 文林의 형성

앞에서 8정 편역이 죽손뿐만 아니라 각성 문인들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환지, 기우만, 김평묵, 송병선, 송병순 등과 몇몇 지방 관료를 제외하면 모두가 탐진강 주변 향촌에 기거하면서 누정에 드나들던 인사들이었다. 이는 누정이 향촌 사회의 혈연적 결속을 넘어 시회와 같은 문학적 연계망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회는 현재까지 난정회(蘭亭會)·풍영계(飜詠契)·상영계(觴詠契)·정사계(亭榭契)·향사회(香社會)·낙양회(洛陽會)·죽계회(竹溪會) 등이 확인된다.

난정회는 이권진(李權鎔, 1805~1887)의 「독우재집유고(篤友齋集遺稿)」 <난정회기(蘭亭會記)>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적시된 바로, 난정회는 왕희지의 난정회를 본받아 1853년에 조직되었고, 회원들은 소장을 가리지

않고 20여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⁶⁾ 실제로 이권전의 <속난정회(續蘭亭會)>에서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회원들이 정자에 빙 둘러앉아서 취흥에 겨워 작시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함께 노래하며 밤늦도록 어울리니	歌鼓紛紛永夕同
지난해 남은 시흥 춘풍에 다시 이네	去年餘會又春風
첫 술잔 순회하니 푸르름이 기울고	初進樽酒傾○綠
꽃가지는 친지 가득 붉은 비단 마름했네	滿地花枝剪綵紅
이어 앉은 옷소매에 자리 더욱 빛이 나고	衣袖聯携華席上
강산은 들이다라 병풍 중의 그림이네	江山倒入畫屏中
오늘 만나 즐기지 않는다면 어느 때 즐기리오	逢今不樂何時樂
밤쯤은 소나무 그늘 늙은이에 이르렀네	半是松陰到老翁

또 난정회는 용호정, 부춘정, 경호정 등을 돌며 열렸고, 사인정에도 난정회가 등장한다. 계안이나 시축을 접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은 서술하기 힘들다, 이것만으로도 20여 명의 난정회 회원들이 탐진강변 여러 누정을 순회하며 문학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풍영계(諷詠契)는 이인근(李寅根, 1883~1949)의 「소천유고(小川遺稿)」에서 그 존재를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풍영계 이름은 무우지풍에서 차용했고, 계일은 매년 3월 그믐날이었으며, 선인들의 풍영을 본받아 1924년 5월 3일에 창립했다.²⁷⁾ 1877년에서 1891년에 태어난 문낙중(文洛中), 최창희(崔昌熙), 최동민(崔東珉), 김장수(金章洙), 이행근(李行根), 김석권(金錫權), 임종래(林鍾來), 강신황(姜信晃), 김병흡(金炳翕), 이정권(李正權), 이인근(李寅根), 백영

26) 李權銓, 「篤友齋集遺稿」, <蘭亭會記>. 夫會有慕古者多 宋富鄭公慕樂天九老之會 爲耆英會 我東蘇應天慕東坡七月之遊爲赤壁遊 今古以來 慕古而遊 不亦樂乎. 王逸少蘭亭之會 眞古今之勝事也 於茲嘗竊有恨不同時之歎矣. 幸癸丑之暮春適丁今年. 雖地非山陰 年維癸丑 則今之遊 其猶古之遊乎. 是月也暮者 春服既成同 我人士二十餘輩 往觀乎 至其遊也.

27) 李寅根, 「小川遺稿」. 其時卽暮春 乃將錫名 因其時想古事 蓋曾賢詠歸之辰 故一言蔽曰風詠 詠之義至矣善矣. ---中略--- 暮春會友 以友人餞春 旣醉旣吟 以作二日之樂 可謂足矣. 而如使以千日不足 若短添更爲快則未矣 明朝卽行夏之時 吾友同來同歸 豈不謂從天時解送迎之道也哉.

윤(白永允), 김태식(金郜植), 김용규(金容圭), 임승현(任承鉉) 등 15명의 회원 이름도 부기되어 있다. 1927년 3월 29일에 동백정 시회에서 창화한 이인근의 <동백정풍영회창화(冬栢亭風詠會暢和)>는 풍영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붉게 지는 꽃가지 출입문에 걸쳐 있으니 남으로 해질녘에 마을을 찾아드네 여울은 울밑을 뚫고 흘러가고 넓은 뜰막 고목은 정자 덮어 어둡네 호시절 만날 때마다 시회가 있었으니 몇 번이나 밤길에 무심히 나섰는가 누각에 올라 등불 켜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옛정 나누며 시를 써서 서로서로 얘기하네	晚拾殘紅拖出門 郭南斜日訪溪村 爰流石澗穿籬近 老大庭梢覆閣昏 每到良辰元有會 幾回行夜只勞魂 層欄斗酒孤燈夕 舊誼新篇各細論
---	--

「소천유고」에는 동백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창랑정, 독취정 등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경호정, 용호정, 영귀정 등에는 풍영계 회원들의 작품이 다수 걸려 있다. 풍영계가 누정을 돌아가며 시회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희석(李僖錫, 1804~1889)의 「남파선생집(南坡先生集)」에서는 <사인정풍영계회(舍人亭風詠契會)> 작품 5수도 발견된다.

상영계는 관계 문헌을 찾을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다만 김진규(金珍圭, 1894~1962)의 「만천시고(晩川詩稿)」에 등재된 <용호정상영계회(龍湖亭觴詠契會)>에서 그 편린은 볼 수 있다.

상영회 약속 있어 모두가 난간에 오르니 노소간의 벗님네들 빙 둘러 앉았네 담소 무르익자 잔 들고 읊조리니 세속 모두 잊고 편한 마음 느끼겠네	會期有約共登欄 老少齊朋座次團 談笑津津觴又詠 渾忘塵慮覺心安
---	--

여기서는 여름날 용호정에 둘러앉아 선경에 취해 술잔을 돌리고 제영한 상영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김진규의 시에는 사인정, 독취정, 창랑정, 영귀정에서 읊은 시에도 ‘상영’이 등장하니 그 시회도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정사계(亭榭契)²⁸⁾는 과거에 운영되던 시회를 최근(1962년)에 경호정에서 다시 조직이 되었다. 동백정(冬栢亭-淸州金氏), 용호정(龍湖亭-朗州崔氏), 경호정(鏡湖亭-長興魏氏), 농월정(弄月亭-光山金氏), 서륜당(敘倫堂-仁川李氏), 영귀정(詠歸亭-長興魏氏), 독우재(篤友齋-仁川李氏)에서 각 성씨의 대표 5인 정도씩이 참여했다. 참여한 인물로는 위계염(魏啓炎)·최병원(崔炳元)·위인환(魏仁煥)·김정규(金貞圭)·이윤기(李潤基)·이제근(李濟根)·김좌규(金佐圭)·김병택(金炳宅)·김종근(金鍾根)·김종관(金鍾款)·김은규(金殷圭)·김행규(金倖圭) 등이다.

팔정회(八亭會)도 있었다. 이수하(李洙夏, 1861~1931)의 「금계집(金溪集)」에는 <팔정회수창(八亭會酬唱)>과 <여향중노소자동백정지부춘정연일수창(與鄉中老小自冬栢亭至富春亭連日酬唱)>이 실려 있다.²⁹⁾ 또 부춘정에서 개최된 팔정회에는 김병좌(金炳佐)·김정규(金貞圭)·김병현(金炳玟)·김진규(金珍圭)·백문규(白文圭)·김용규(金容圭)·최원표(崔元杓)·이병교(李炳敎)·이수평(李洙平)·최병원(崔炳元)·김용대(金容大)·문재영(文在榮)·박경옥(朴景玉)·김한동(金漢東) 등이 회원이다.

이밖에 탐진강 8정을 순회하며 가졌던 시회는 향사회(香社會), 낙양회(洛陽會), 죽계회(竹溪會) 등이 있었고,³⁰⁾ 양사계(養士契)³¹⁾와 강친계(降親契)³²⁾ 또한 이곳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평묵은 적거에서 사면을 받아 부춘정에 들렀을 때 백여 명이 모여 화운하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고 시를 지으며 즐겁게 보냈다³³⁾ 하였으니, 그 시회의 규모도 가히

28) 임형, 앞의 논문 참조.

29) 장흥문화원, 「장흥문집해제」, 장흥문화원, 1997, p.40.

30) 李寅根, 「小川遺稿」, 〈詠詠契序〉. 夫會人者同而命名取意 皆有不同也 故有蘭亭 香社 與夫洛陽 竹溪之事是耳. 惟我鄉隣士 友克守世分 惠好同歸者 亦不鮮 而皆可謂 修慎好古之流.

31) 魏澤基, 「桂史遺稿」, 卷1, 詩, 〈養士契會詩韻〉

32) 廉錫珍, 위의 책, 같은 곳. 〈辛卯四月四日修降親契于獨醉亭鄉友畢集拈韻得成字〉

33) 金平默, 편역 〈富春亭後記〉. 余自智海謫舍 蒙宥而歸 行過富春 哭拜神壇 彷徨院址 登臨亭榭 宗人士友相送者 數十百人 仍夜會幸社 精舍齒坐 講誦酌酒相歡

집작할 수 있다. 독취정에서도 여러 문인들이 함께 모여 수창했던 작품이 「남곡유고」에 있다.

이처럼, 8정에서 활동했던 시회가 12그룹이나 존재했고 여기에 참여한 문인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避世의 逆說 - 幽隱至樂의 諷詠

8정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이 문림을 이루었다 하였거니와, 살펴보면 이들은 8정을 유거와 은일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풍영의 성격은 유은지락이 대부분이다.

<창랑정기>에는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물이 탁하면 발을 씻으며, 그 대는 정자 앞 여울물가의 어부가를 들어 보라.”³⁴⁾ 한 구절이 보인다. 창랑은 「맹자(孟子)」의 탁영 탁족에서 연유하였음은 쉽게 알 수 있다. '탁영 탁족'은 세속을 초월해 살아간다는 의미로 쓰인다. 결국, 창랑은 유거 은일의 동강이나 기수와 동의어일 것이다.

<사인정기>에는

“이곳 천인절벽은 사시사철 하얀 눈빛을 띤 신기한 바위였다. 굽이굽이 만리를 흘러내리는 강물은 잔잔하여 거울 같은 풍경이었다. 꽃나무가 가린 대숲은 선생이 심은 것이요, 변화무쌍한 구름과 안개를 거두어 간직하는 것은 선생의 여유로운 모습이다. ---중략--- 그동안 음풍농월하는 사람들은 거쳐 가고, 나물 캐고 낚시질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들었다”³⁵⁾

하였다. 사인정의 풍광은 그대로 산수화 같은 선계인데, 여기서도 이곳에서 자연을 즐기는 은일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독취정기> 일부이다.

34) 李相珪, 편역 〈滄浪亭記〉, 淸斯濯纓 濁斯濯足 子其聽前灘上漁父歌也.

35) 沈煥之, 편역 〈舍人亭記〉, 千仞壁立 四時雪色 岩之奇也 萬里一曲不波 如鏡湖之勝也 花木掩翳 叢竹繚繞 公之裁也 雲烟萬變 俱收并蓄 公之富也. --중략-- 風咏者往焉 採釣者會焉

“세상은 다 이익을 쫓는 장사치들이나 자신만 홀로 선비다운 선비라 한다. 모두가 다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 급급해하지만 자신만 유달리 자적한다. 진 필에 있는 장초(蔣楚)처럼 세상일을 모르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고, 석서(碩鼠)들이 돈깨미 차는 것을 탄식한다. 거기에 취해 있으니 걱정하는 마음은 해소할 수가 없다. 그런즉 모든 명예와 이익, 번영과 쇠퇴, 비방과 칭찬, 얻음과 잃음에 대해서는 오직 그렇게 몽매하여 자세히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 많고, 고요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많다. --중략-- 그래도 이 정자 주인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득실에 태연히 하며 일생을 마칠 계획으로 삼았다”³⁶⁾

여기서 장초는 세상일을 모르는 선비를, 석서는 위정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세상은 명리만을 쫓는 이들로 득실거리는데, 독취정 주인은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아름다운 승경과 벗하고 세상에 나서기를 거부하며 유가와 은일을 최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부춘정은, 엄자룡이 복거했던 동강 위의 부춘산(富春山)에서 누정 이름을 취했다는 것을 <부춘정기(富春亭記)>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³⁷⁾ <부춘사창건지(富春祠創建識)>에는

“정자에서 노니는 즐거움에 이르러, 자사는 연못 고기가 노니는 오묘함을 체득했고, 증점은 커다란 봉새의 모습을 추종했듯, 스스로 흡족한 공업(功業)을 깊이 궁구해야 할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마음대로 상상하고 어림짐작만 한다면 어찌 그 즐거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³⁸⁾

하였다. 이는 부춘정에 대한 즐거움을 공업을 깊이 있게 궁구하는 데서 찾으라는 말이다. 공업은 유가적 청일이나 고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36) 廉錫珍, 위의 책, <獨醉亭記>. 世皆商商 我獨士士 衆皆躁進 我獨自靖 羨長楚之無知 歎碩鼠之貫女 如醉之憂心莫可排遣 則於一切名利浮沉毀譽得失 專然矇昧 熟視不見衆 靜聽不聞衆 有若真醉 而謾不知何事 此衆人之所不願欲 而反譏議者 主翁坦然而不疑夷 然自得矢爲畢生活計 是則主翁之舉一世所獨也

37) 閔亨基, 편역 <富春亭記>. 噫 發潛闌幽 士林之公議也 卜地於長興之富春亭 以爲暇享之所 而三世三賢 供此院宇 則富春者 得非嚴陵之所從遁耶 地名相符 亦可異也

38) 金基憲, 편역 <富春祠創建識>. 至若江亭遊思之樂 可以體子思淵魚之妙 可以追曾點仞鳳之象 而深造自得之功 豈徒想象揣摩於顧眄之間 而知之哉.

동백정은 거의 모든 기문이나 상량문에서 김린의 절의를 칭송하면서 그 뜻을 이어받으라는 충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윤황은 <차운시>에서는

활터 아래 작은 시내 곁에 있는 작은 정자	射場之下小溪亭
아름다운 동백정은 예전부터 있었다네	冬柏嘉名自昔年
병풍 같은 계곡엔 구름 일어 큰 비 오고	屏澗流雲常碩雨
수인산 넘는 석양, 멀리서 연기 이네	仁山日落遠收烟
나그네 때맞춰 이르니 유풍(儒風)이 서고	行人時到儒風立
시객들 늦은 밤에 오르니 달도 취해 잠이 드네	詩客夜登醉月眠
바둑 두고 거문고 타며 밤새 즐기노라니	棋談琴韻長爲樂
늘그막의 청유(淸遊)놀이 신선놀음 같구나	晚歲淸遊似學仙

라 하여, 호계 변에 세워진 동백정, 병풍처럼 펼쳐진 산자락, 수인산을 넘어가는 햇살 등은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었다. 시객들은 동백정을 유거와 은일의 공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용호정은 그 풍광이 빼어나다.³⁹⁾ 풍광이 좋은 만큼 제영도 유은지락이다.

날개를 펼친 듯한 정자는 용궁을 굽어보고	翼然亭子俯龍宮
풍경과 어우러진 무성한 나무들이 다 그림이라	風物葱籠盡畫中
이름 있어 와서 보니 과연 경치가 아름답고	名地得來佳水石
우거진 숲은 오동나무 고목을 에워싸고 있네	芳林守護老梧桐
백사장에 새가 날자 하얀 눈이 내린 듯하고	沙鳥散飛翻雪白
어선 불빛 뒤섞여 붉게 주름 사이로 드네	漁燈錯落入簾紅
탐진강 십리 길, 강 위에서	泗陽十里長江上
청복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네	淸福其人是主翁

이 시는 사곡처사(蛇谷處士)라 불렸던 김윤진(金潤珍, 1845~1925)의 <근차원운(謹次原韻)>이다. 청복은 청아하고 한가하게 살면서 누리는 복이다. 이곳 역시 유거와 은일의 처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호정상량문>에는

39) 李僖錫, 편역 <龍湖亭記>. 蓋水之自西北峽東而來者 抑揚屈折至此 而始得滄瀾漣漪 東則白石齒齒 西則明沙鱗鱗 固山中一靈界也.

“고기 낚고 밭을 갈아 동강의 실바람이 끊이지 아니했고, 시 읊고 목욕함에 기수의 기상을 보았다. ---중략--- 봄날이 화창함에 이미 어린 아이 함께 시 읊고 목욕하니 방자하게 무우지풍 좋을시고, 세월이 오래 흐를지라도 길이길이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니 어찌 죽무의 썩어 없어짐을 근심하리오.”⁴⁰⁾

하였다. <경호정중건기>에도 자신의 선조가 “언제나 경호대 바위 위에서 바람 쏘이며 시를 읊으셨다. 홀연히 자연과 함께한 삶은 증점의 무우 생활 같았고, 담담하게 세상을 잊은 삶은 하지장(賀知章, 659~744)의 경호 생활 같았다.”⁴¹⁾ 하였다. 하지장 역시 만년에 사명산(四明山) 경호에서 은일 자적했던 은자이다. 경호정에서도 유은지락을 볼 수 있다.

위계민의 <영귀정기>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를 것이며, 노래 부르기를 다하면 돌아올 것이다. 돌아 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올 것이니, 저 광란의 물결과 놀란 파도가 감히 이 정자의 아래와 이 강의 위에 들어오겠는가? 그 즐거움이 도도할 것이니, 알지 못한 사이에 천지 사이에 다시 어떤 즐거움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⁴²⁾

영귀정은 ‘돌아오면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온다는 “歸而詠 詠而歸”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란의 물결’이나 ‘놀란 파도’는 밀물처럼 불어 닦친 바깥세상이다. 결국 영귀정은 유거와 은일의 공간임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8정은 편액만으로는 향촌 문인들의 유거와 은일 처소가 아니었을까 예단할 수가 있다. 편액의 경향이 거의 누정 주인 회고에다 실경산수 완

40) 魏國采, 편역 <鏡湖亭上樑文>. 於釣於耕 桐江之絲風不絕 而咏而浴 沂水之氣象可觀 ---중략--- 春日和暢既與冠童以咏浴肆好舞雩之風 歲月滋久永賴來裔之修葺豈惧竹樓之朽.

41) 魏啓炎, 편역 <鏡湖亭重建記>. 鏡湖白石上 飄然與化偕流 如點也之舞雩 澹然與世相忘 如賀監之鏡湖也.

42) 魏啓閔, 편역 <詠歸亭記>. 興來則詠 詠已則歸 歸而詠 詠而歸也 彼狂瀾驚濤 莫敢入於此亭之下 此江之上矣 其樂陶陶 不知天壤之間 復有何樂如此乎

상이 주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사를 비추어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19세기는 변화무쌍한 시대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전개되던 실학의 영향으로 현실 개조 풍토가 이때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몇몇 벌얼 가문에 의해 장악되던 중앙 권력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들에 의한 학정은 향촌 사회를 몹시 힘들게 했다. 이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장흥 이웃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사회사와 풍유시로써 국가의 폐정, 관리의 부정들을 고발했고 백성들의 참상을 천하에 알렸다.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장흥 방촌에서 집필하면서 사회개선론을 주창했다. 또 그는 제도적 효용성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현실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시를 썼다.⁴³⁾ 일부 양반이나 향촌 지식인들은 농민과 함께 향회를 열어 민란에 가담하는 일도 있었다. 급기야 장흥에서도 민란이 일어난다.⁴⁴⁾ 동학농민전쟁 때는 사인정, 독취정, 창랑정과 가까운 석대들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⁴⁵⁾ 뒤이은 경술국치와 독립운동 때는 일제에 격렬하게 저항도 했다.

세태가 이러하였는데도, 8정 편역에는 다산이나 존재와 같은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의 사회사나 풍유시가 없다. 8정 출입 문인들은 다산과 존재와는 시공의 차이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자 원주인의 절의나 기개를 감안해서도 유은지락의 풍영은 지역문학으로서 의외의 경향이다. 이를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의도적 현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작가들의 생애와 문학 전반을 시대와 연결하여 상세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43) 拙稿,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의 문학적 기반”, 『한국시가문화연구』9집, 2002. 참조.

44) 1862년(철종 13) 5월 13일 장흥에서 고제환(高濟煥), 정방현(鄭邦賢), 임재성(任在星) 등의 주동으로 1,000여 명의 농민군이 봉기하여 관아와 부정한 지방 관리들의 숙소를 습격하고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장흥민란이라 한다.

45) 장흥 동학 농민군이 1894년 12월 1일 금구, 광주, 화순, 남평 등지에서 패전한 동학 농민군과 합세하여 석대들에서 최후의 혈전을 벌였다. 장흥 석대 전투는 정읍 황도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4대 전적지가 된다.

문집을 남긴 향촌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얼핏 보면 실제로 사회시나 풍유시가 없는 바는 아니다.⁴⁶⁾ 이는 편액 작가들이 당시 8정만을 찾아다니며 유은지락만을 읊조렸던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8정 편액 문학이 강변 정자라는 문학적 생태 환경을 고려할 때 유은지락 풍영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피세의 역설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 할 것이다.

3. 一群의 지역문학 - 實景山水의 內面化

예술은 작가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작품이든 그 밑바탕에는 작가의 창작 환경과 조건이 수용되기 마련이다. 8정 편액은 정자라는 환경 때문에 제영에 선인들에 대한 찬사나 회고지정이 개입되어 있고, 아름다운 주변 산수가 끼어 든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8정이 각각 같은 운으로 제영되다 보니 시인의 내면세계가 유사하게 형상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8경시와 10경시를 보자. <사정8경>⁴⁷⁾, <경호정10경>, <영귀정10경> 어느 것이나 정자 앞에 펼쳐진 실경이 그 미적 대상이다. <사정8경>은 추풍(秋風), 야월(夜月), 목적(牧笛), 어화(漁火), 낙조(落照), 귀운(歸雲), 석침(夕砧), 신종(晨鐘)을 읊었다. <경호정10경>은 제월(霽月), 명탄(鳴灘), 효종(曉鍾), 목적(牧笛), 귀운(歸雲), 부연(浮烟), 청풍(淸風), 낙조(落照), 어화(漁火), 명사(明沙)를 노래했다. <영귀정10경>은 낙조(落照), 제월(霽月), 취연(炊煙), 어화(漁火), 농가(農歌), 초적(樵笛), 청풍(淸風), 낙하(落霞), 주기(酒旗), 반중(飯鍾)을 표현했다. 3편의 대상들이 모두 대동소이한 시어들이다. 원래 8경시는 송나라 때 송적(宋迪)의 실경산수화인 「소상팔경도(瀟湘八景

46) 장흥문화원, 「장흥 문집 해제」, 참조.

47) 金馥鉉, 편액 <舍亭八景>. 尊池秋風 桂亭夜月 德堤牧笛 楊谷漁火 鑑湖落照 笛嶺歸雲 楓村夕砧 芳寺晨鐘

圖)」의 화제 형태이며, 10경시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형식이다. 이 두 시형이 그대로 사인정, 경호정, 영귀정에서 채택되었다 함은 그 실경이 미적 대상이기에 충분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 시는 만오(晩悟)의 <등창랑정경주주인길군아축(登滄浪亭敬酬主人吉君雅囑)>이다.

천인단에 천년 동안 참으로 고요터니	稜崖幽絕闌千秋
홀연히 새 정자가 돌 머리에 세워졌네	忽見新亭奠石頭
비탈길 죽장인데 비를 만나니	懸逕衣筇逢過雨
난간의 어른 말씀 모래톱에 떨어지네	危欄咳唾落空洲
성 가까이 거마(車馬)조차 속세를 벗었는가	近城車馬塵還隔
산운(山雲) 속에 새가 날고 들판이 아득하네	列岫雲禽野轉悠
물에 잠긴 자두 참외 더 없이 상쾌하니	沈李浮菰尤覺爽
창랑에서 한 곡조 그칠 수가 없어라	滄浪一曲興難休

만호는 창랑정 기문을 썼던 이상규(1857~1946, 본명 이상린)이다. 그는 정자 주인의 청탁으로 1921년에 제영했다. 먼저 옛 성터에 세워진 창랑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고, 이어 작가가 창랑정에 올라 관망하는 느낌을 술회하였다. 그리고 산수 속에서의 취흥을 결구로 하였다.

다음은 이상구(李相求)가 <차운>한 사인정 제영 중 하나다.

젊었을 때 사인정에서 놀았던 특별한 추억	得得追遊以壯年
가을에는 피리와 거문고 앞 다투어 울려퍼졌지	筚絃前導響秋天
청산을 가로질러 갈매기 떼 날아가고	青山劈破鷗飛外
낭떠러지 누각 옆엔 두루미 우는 소리	層壁危樓鶴唳邊
굽어보면 장흥의 길편한 들판	俯壓平郊長澤縣
골골 물을 거둬 강진으로 흐르네	全收衆壑道康川
사인(舍人)이 떠난 뒤 빈 정자만 우뚝한데	舍人一去虛亭立
뜰 앞 나무 바람소리 나그네가 먼저 듣네	庭樹惟聞客耳先

수련에는 과거 시인묵객들이 수창하던 모습을 그렸다. 함련과 경련에는 사인정에서의 근경과 원경을 각각 담았다. 미련에는 주인이 떠난 정자에 자

신을 의탁한 모습이다.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와 다를 바 없다.

독취정 차운시 역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운근(雲根)을 뚫고 깨어 독취정을 세우니	鑿破雲根醉榭成
산중의 해와 달에 작은 창이 밝아라	山中日月小窓明
성 밖의 비바람은 어디든 많고 많으나	城邊風雨多何處
천지에 술향아리 나 홀로 태평이라	壺裡乾坤獨太平
북궐 그린 헛된 고생 천리의 꿈 아니던가	北闕徒勞千里夢
남쪽의 욕심 없는 늙은이 한낱 서생이라	南州虛老一書生
태평시대 멀어졌는데 지금 어이 그 때문인가	唐虞世遠今安適
명세코 남은 인생 공명에 젓지 않으리라	誓此餘生不露名

이는 김인섭의 <차독취정운(次獨醉亭韻)>이다. ‘성 밖의 비바람’을 피하여 경치 좋은 곳에서 홀로 태평한 늙은이의 욕심 없는 삶을 볼 수 있다. 속세를 잊고 살아가면서 공명에 함몰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드러나 있지만, 감상하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승경에 홀로 취한 작자와 하나가 된다.

부춘정에는 학동 아래 어느 노인이 장흥부사로 재직했던 박현규(朴顯圭)에게 선사한 제영이 있다.

여름날 놀자하여 부춘정에 오르니	夏天遊囑上春亭
가을바람 불어왔나, 정신을 잃었네	忽似秋涼憶忘形
용반 옛 바위엔 언제나 밤비 내리니	老石龍盤常夜雨
사람 떠난 대 위엔 새벽 별이 몇인가	古臺人去幾晨星
모처럼 한가하니 석잔 술에 취하여	偶成暇日三杯醉
덧없는 인생의 꿈 비로소 깨게 되네	始得浮生一夢醒
정자에 노닐고서 늦게야 돌아가니	對此怡然歸去晚
청산도 즐거워라, 서로 마음 통했나 봐	青山如樂可通靈

작자는 은자이지만 박현규는 현실에 있는 관료이다. 이 시는 그런 신분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자에 올라 작자와 객이 함께 자연에 동화되어 있다. 은일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산수에 귀의하겠다는 의식이 투영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872년 중건할 때 김이한(金履漢)이 <동백정기> 말미에 연(年)·연(烟)·면(眠)·선(仙)을 운으로 원운시를 붙였는데, 여기서도 조상들의 음덕을 추모하면서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며 시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동백정 그 이름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柏以名亭已自前
후손들이 가업을 금년에도 이었구나	後昆肯構在今年
아름다운 계책 비취 조상 음덕 추모하니	照厥嘉謨追德蔭
노년에 청산 빌려 운연(雲煙)으로 배불렀네	老於清債飽雲煙
제비는 높이 날고 바람은 부는데	賀燕高飛風外聲
갈매기는 서로서로 달 속에 잠이 드네	盟鷗相近月中眠
주렴 열고 산수 경치 안으로 들었으니	開簾輸入溪山景
시 동무들 올 때는 주선이 되겠지	詩伴來時又酒仙

용호정은 망친지정이요, 위친지정이었다. 그림에도 거의 모든 편액은 실경 산수화 같은 느낌을 준다. 위하조(魏河祚)의 <용호정경차반상운(龍湖亭敬次板上韻)>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산을 등진 용호정이 용궁 위에 있으니	背山亭樹壓波宮
이곳은 인간 세상 중에 별천지로다	除是塵間別界中
난간에 구름 걷히자 달빛이 하얗게 들고	靜掃雲欄邀月白
한가로이 시주 주고받으니 선상도 붉어지네	閑斟詩酒泛葩紅
물가 반석 위엔 신령한 용이 누운 듯하고	如神龍臥汀盤石
뜨락에 오동 심었으니 봉황 울음소리 깃들겠지	待瑞鳳鳴庭植桐
강호를 그리려 해도 그 뜻을 다하기 어려우니	欲盡江湖難盡意
주인장의 청복은 어부에게 물어야겠네	主人淸福問魚翁

마치 신선 세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난간 위의 구름이나 달빛, 호수에 비치는 낙조는 그러한 세계를 뚜렷하게 형상화한 시재들이다. 백색과 붉은 색의 결합은 산수화의 미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과 같다.

강신황이 <근차(謹次)>한 작품은 경호정의 풍광과 정자 주인의 청정한 심회회고를 잘 보여준다.

이름난 터에 늦게나마 경호정을 세우니
 눈앞에 아지랑이가 별스럽게 아른거리네
 푸른 잣나무, 붉은 연꽃은 삼절의 으뜸이요
 사시사철 사장에선 여울이 울어 예네
 어부가 목가는 바람 앞서 들려오고
 시 짓는 벗들은 달 아래에 머물렀네
 저절로 접지한 것이지 어찌 칙사를 받았으랴
 주인 심사 맑기가 언제나 가을이었겠네

名區歲晚起斯樓
 眼際烟光更別流
 翠柏紅蓮三節出
 白沙鳴瀨四時洲
 歌生漁牧風前到
 得詩賓朋月下留
 自占何須承勅賜
 主雍心事淨常秋

여기서는 경호정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렸다. 미련은 청한한 정자 주인을 말하듯 하지만 사실은 작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귀정 시문은 정자의 이름 그대로 무우지풍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위계래(魏啓來, 1860~1941)의 <근차영귀정운(謹次詠歸亭韻)>이다.

물가에 돌을 쌓아 이 정자 세웠네
 하늘이 만들고 땅이 점지한 거네
 샘물소리 차츰차츰 베게머리로 들려오고
 봄풀은 베지도 않았는데 뜰엔 벌써 비취빛
 기수의 한가한 노래 오늘 저녁 어울리니
 행단의 옛 거문고 소리 생황소리 내는구나
 시원한 바람에 홀적삼은 차가운 시절인데
 당채 읊고 돌아오니 취했다 다시 깨네

臨流築石立斯亭
 天作于年地炳靈
 漸瀨源泉清入枕
 不除春草翠生庭
 沂水閒歌宜此夕
 杏壇古瑟幾移笙
 灑風單衿時維寒
 詠棣歸來醉復醒

행단(杏壇)은 공자가 강학했던 곳이며, 당채(棠棣)는 「시경」 소아에 나오는 작품으로 형제가 화목하게 술을 마시며 즐기려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분히 기수에서의 풍경과 닮아 있다 하겠다.

이렇듯 8정 누정시는, 단순한 외적 경관의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자연에 이입되는 선경후정의 심미적 정취를 보여준다. 8정 시문은 대부분 실경산수의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강변 누정이라는 창작 환경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탐진강변 향촌문학 특징의 하나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장흥 탐진강변 8정과 여기에 걸린 편액을 대상으로 지역문학 한 축으로서의 문학적 실체와 의의를 살폈다. 논의의 과정에서, 여러 시회 혹은 시계의 근거가 될 만한 시축 혹은 계안을 상당부분 찾지 못했다. 수많은 향촌 문인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행적, 문집 유무, 문학적 성과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논거 부족의 오류를 무릅쓰고 8정과 관련하여 한 시대의 지역문학 일단을 고구하였다.

8정의 역사는 선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실제로는 19세기 전후로 창건, 중수되어 비로소 이때부터 시회 장소로 활용되고 편액이 걸리는 등 문학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문과 시문을 통해 탐진강은 동강 및 기수와 동일시되었고, 그 주변은 부춘산과 무우로 대치되어 있어서 그 문학적 실체를 확연하게 엿볼 수 있었다. 이에 8정과 그 편액이 갖는 향촌문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8정은 향촌 사회의 혈연적 결속을 넘어 문학적 연계망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8정을 집단적으로 순회하며 갠가 수창했던 시회가 그 논거인 바, 지금까지 발견된 시회로는 난정회·풍영계·상영계·정사계·향사회·낙양회·죽계회·양사계·강친계 등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문인들이 문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8정 편액의 경향은 당시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비추어 전혀 의외로 유은지락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라 정자라는 창작 공간의 자연적 환경 때문으로, 피세의 역설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판단하였다.

셋째, 8정 제영은 누정 주변 실경산수가 유사하게 내면화되었다. 강변 누정이라는 문학 공간에서 자연과 작가가 하나 되는 심미적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8정 편액은 지역문학의 하위로서 향촌문학으로 존재했다고 보았다.

지역문학의 실체와 이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을 보다 정치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유명한 지역출신 문인 몇몇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장르별, 향촌별, 시기별 작가와 작품을 종합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모두 합하고 비교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결과로써 장흥 지역문학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졌거나 지역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향촌문학으로서 탐진강변 8정 편액의 실체와 의의가 규명되어 지역문화 정체성을 보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여지(1656)」
「장흥읍지(1747)」, 「여지도서'(1759)」, 「대동지지'(1864)」
「증보문헌비고(1908)」
南孝溫 「秋江集」, 白光弘 「岐峯集」, 白光勳 「玉峯集」, 廉錫珍 「南谷遺稿」
金正采 「仁谷集」, 李權鎔 「篤友齋集遺稿」, 李寅根 「小川遺稿」,
魏澤基 「桂史遺稿」
「慶州金氏杜溪公派大同譜」 卷 4. 湖南文化社, 1991, p.330.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가문학」, 월인, 2009.
朴煥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17집, 全南大湖南文化研究所, 1987, pp.1-28.
임 형, 「동백정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장흥문화원, 「장흥 문집 해제」, 도서출판 무릎, 1997, p.40.
조용호, “장흥의 樓亭과 樓亭詩의 사회·문화적 맥락” 「지방사와 지방 문화」 제14권, (역사문화학회), 2011.
최재남,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拙 稿, “存齋 魏伯珪의 문학적 기반”, 「한국 시가 문화 연구」 9집, 2002.

【Abstracts】

The Significance of Pavilions along the Tamjin River in Jangheung for Local Literature

Kim Jun-ok

There are eight pavilions along the Tamjin River of Jangheung. They are Changnang Pavilion, Sain Pavilion, Dokchui Pavilion, Buchun Pavilion, Dongbaek Pavilion, Yongho Pavilion, Gyeongho Pavilion, and Yeonggui Pavilion. All of the eight pavilions were constructed in early Joseon Dynasty, but lost until they were rebuilt around the 19th Century. Many literature activities began at that time to produce many literary table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literary substantiation and significance of these tablets.

The tablets of essays and poetry showed that the Tamjin River was valued as equally important as the Dongjiang River or Kisu of China and The surroundings were also referred to as Mt. Buchun and Muwoo. Here, we can see an aspect of literature. Based on an analysis of literary tablets, th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pavilions along the Tamjin River within local literature are as follows:

First, the eight pavilions were used for literary networks beyond the solidarity of local clans. This is proven by the poetry societies that promoted the eight pavilions one by one. The societies include: Nanjeonghoe, Pungyeonggye, Sangyeonggye, Jeongsagye, Hyangsaehoe, Nagyanghoe, Jukgyehoe, Yangsagye, and Gangchingye. The writers who

participated in those societies organized a literary community.

Second, local writers promoted their literary activities using the eight pavilions as their secluded hideouts. In the 19th century, the local region was very actively engaged in society, but the tablets of the writers who visited the eight pavilions did not show this tendency. This was a paradox to escape from the reality.

Third, most poems described the mountains and rivers around the pavilions with rather factual depictions. The writers became one with nature within the literary space of the riverside pavilions despite the fast-paced social circumstances of the 19th century. The poetry depicting the eight pavilions existed as differentiated local literature of a community.

In order to identify th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local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gion into several towns and study each genre, time, and writer separately to combine and compare the findings. In this resp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critical for identifying the local literature of Jangheung.

Key words : Eight Pavilions along the Tamjin River, Local Literature, Literary Community, Paradox of Escapism, Poetry of Mountains and Rivers

이 논문은 2017년 2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